

2. 시도 공통항목

- 2-1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 2-2 삶에 대한 만족도 - 2) 지역생활 전반
- 2-3 삶에 대한 만족도 - 3) 행복 빈도
- 2-4 삶에 대한 만족도 - 4) 걱정 빈도
- 2-5 가구 월평균 소득
- 2-6 현재소득에 대한 만족도
- 2-7 생계유지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 2-8 주거환경 만족도 - 1)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 2-9 주거환경 만족도 - 2)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 2-10 주거환경 만족도 - 3)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 2-11 교통수단 만족도 - 1) 시내버스/마을버스
- 2-12 교통수단 만족도 - 2) 시외/고속버스
- 2-13 교통수단 만족도 - 3) 택시
- 2-14 교통수단 만족도 - 4) 지하철/경전철
- 2-15 전남지역에서 거주한 총 기간
- 2-16 현재 전남 시군에서 거주한 총 기간
- 2-17 향후 10년 이후 전남지역 거주 의향
- 2-18 향후 10년 이후 현재 시군 거주 의향
- 2-19 지역내 일자리 기회의 충분여부
- 2-20 일자리 만족도 - 1)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 2-21 일자리 만족도 - 2) 임금/가구소득(일에 비해)
- 2-22 일자리 만족도 - 3) 근로시간
- 2-23 일자리 만족도 - 4) 근무환경
- 2-24 일자리 만족도 - 5) 전반적인 만족도
- 2-25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 2-26 교육환경 만족도 - 1)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
- 2-27 교육환경 만족도 - 2)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
- 2-28 교육환경 만족도 - 3) 학생들의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받을 기회
- 2-29 교육환경 만족도 - 4) 평생교육 기회의 충분여부
- 2-30 여가활동 만족도 - 1)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 2-31 여가활동 만족도 - 2) 전반적인 여가활동
- 2-32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바쁘거나 시간이 부족) - 1) 평일
- 2-33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바쁘거나 시간이 부족) - 2) 주말(공휴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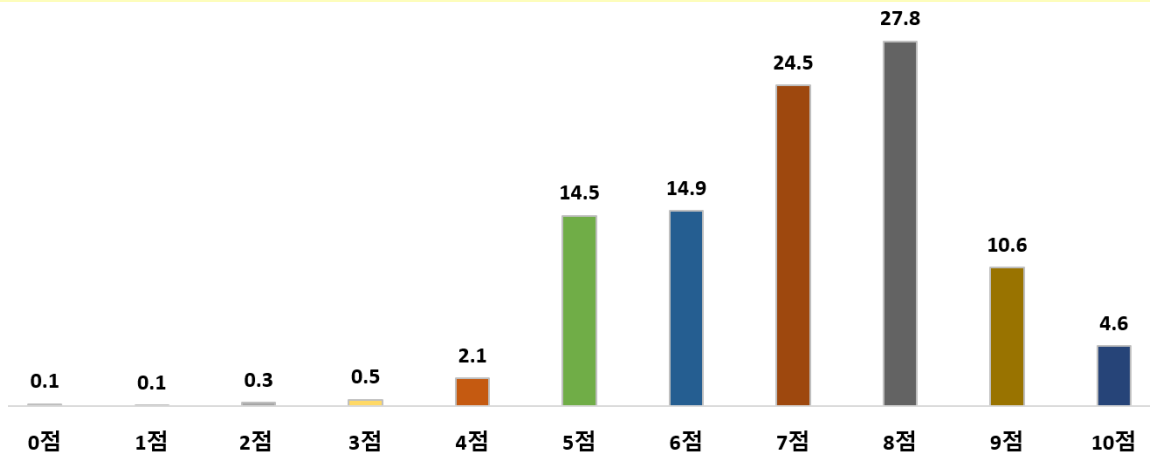
2-1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7.1점」

-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는 평균 7.1점이며, 분포는 「8점」(27.8%), 「7점」(24.5%), 「6점」(14.9%) 순으로 나타남.

- 평균 만족도는 2025년 7.1점으로 2024년(7.1점)과 동일함.
- 지역별: 서남부권(7.2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북부권(7.1점), 중부권(7.0점)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7.1점)과 여성(7.1점)의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별: 15~29세(7.4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70세 이상(6.9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혼인상태별: '배우자 있음' 집단(7.2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사별/이혼'(6.8점) 집단이 가장 낮았음.
- 경제활동별: 실업/비경제활동자(6.6점)보다 취업자(7.2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표 2-1]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단위: %, 점)

구 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17년	100.0	0.0	0.1	0.9	3.2	21.4	17.5	21.7	21.1	10.8	3.2	0.0	6.8
2018년	100.0	0.0	0.6	0.2	0.2	1.3	11.8	25.8	31.3	20.7	5.7	2.4	6.8
2019년	100.0	0.0	0.0	0.1	0.1	2.5	17.4	28.3	23.3	16.7	6.9	4.6	6.7
2020년	100.0	0.1	0.0	0.1	0.1	0.4	6.1	7.8	45.5	27.2	8.6	4.1	7.3
2021년	100.0	0.0	0.0	0.1	1.8	4.1	22.9	13.9	26.8	18.9	6.5	5.0	6.7
2022년	100.0	0.0	0.1	0.6	1.9	2.9	24.9	18.1	22.4	16.6	6.2	6.4	6.6
2023년	100.0	0.2	0.2	0.4	0.8	1.4	18.4	20.6	24.7	23.6	5.9	3.6	6.8
2024년	100.0	0.0	0.1	0.5	0.6	2.0	11.2	15.6	31.5	23.9	10.3	4.3	7.1
2025년	100.0	0.1	0.1	0.3	0.5	2.1	14.5	14.9	24.5	27.8	10.6	4.6	7.1
< 지역별 >													
중부권	100.0	0.6	0.3	0.3	0.4	0.9	6.2	25.7	25.5	26.8	11.2	2.2	7.1
북부권	100.0	0.0	0.0	0.5	0.9	4.1	19.3	12.1	23.4	21.8	10.2	7.7	7.0
서남부권	100.0	0.0	0.0	0.0	0.1	0.9	15.3	10.5	25.0	34.7	10.5	3.0	7.2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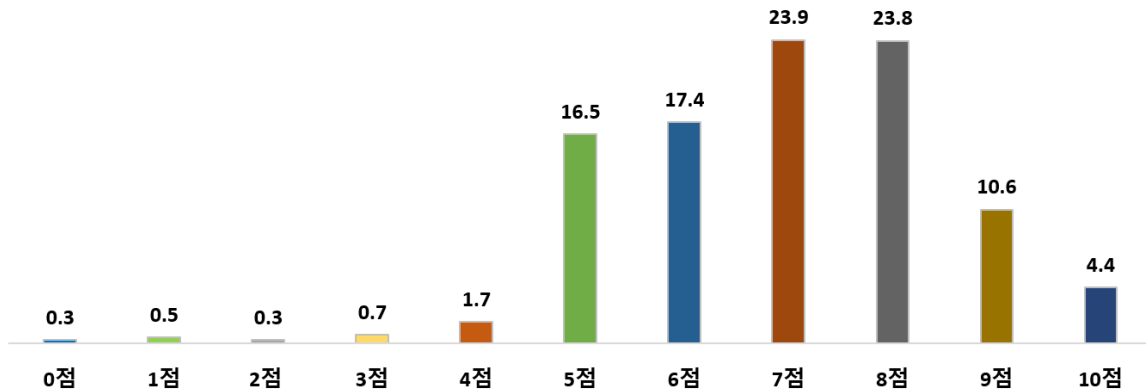
2-2 삶에 대한 만족도 - 2) 지역생활 전반

살고 있는 지역의 만족도는 평균 「6.9점」

-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는 평균 6.9점으로 「7점」(29.7%), 「8점」(23.9%), 「6점」(17.4%) 순으로 나타남.

- 평균 만족도는 2025년 6.9점으로 2024년(6.9점)과 동일함.
- 지역별: 북부권(7.1점), 서남부권(7.0점), 중부권(6.7점)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6.9점)보다 남성(7.0점)의 만족도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15~29세(7.2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65세 이상(6.8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혼인상태별: '미혼'과 '배우자 있음' 집단(각 7.0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사별/이혼'(6.7점) 집단이 가장 낮았음.
- 경제활동별: 실업/비경제활동자(6.5점)보다 취업자(7.0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직업별: 사무/관리직(7.8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6.8점)이 가장 낮았음.

삶에 대한 만족도 - 2) 지역생활 전반



[표 2-2] 삶에 대한 만족도 - 2) 지역생활 전반

(단위: %, 점)

구 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 0 2 0 년	100.0	0.1	0.0	0.1	0.6	0.3	6.3	9.1	45.0	25.9	7.9	4.6	7.3
2 0 2 1 년	100.0	0.0	0.0	0.0	2.0	4.6	22.9	14.5	25.5	18.8	7.0	4.7	6.6
2 0 2 2 년	100.0	0.2	0.5	0.8	2.2	2.5	26.8	18.1	21.5	16.1	6.1	5.2	6.5
2 0 2 3 년	100.0	0.3	0.3	0.4	1.3	1.7	19.0	20.4	24.6	22.2	6.5	3.4	6.7
2 0 2 4 년	100.0	0.0	0.4	1.5	0.3	1.8	12.8	18.1	29.7	23.1	7.5	4.7	6.9
2 0 2 5 년	100.0	0.3	0.5	0.3	0.7	1.7	16.5	17.4	23.9	23.8	10.6	4.4	6.9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0.3	0.4	0.3	0.6	1.1	6.8	25.6	24.2	24.1	14.2	2.4	7.1
북 부 권	100.0	0.5	0.9	0.5	1.1	2.7	20.8	14.1	26.7	17.0	8.9	6.7	6.7
서 남 부 권	100.0	0.0	0.0	0.0	0.4	1.0	18.5	15.4	20.9	30.7	9.8	3.5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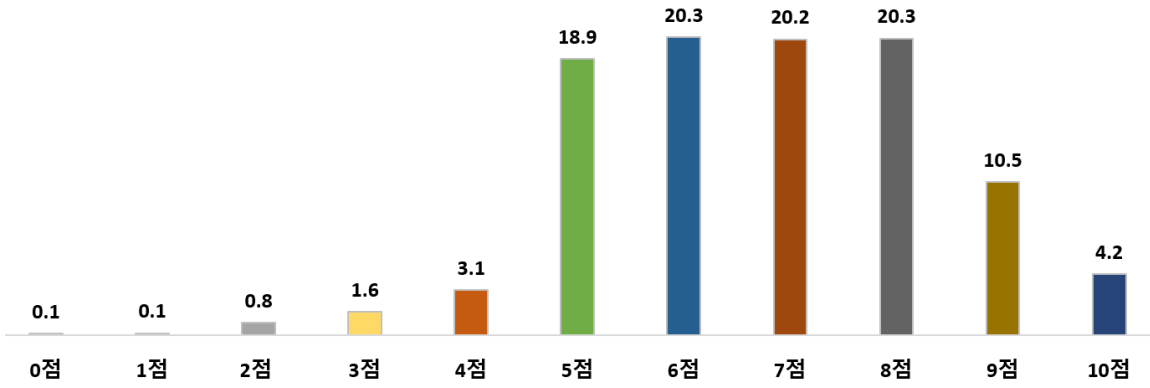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2-3 삶에 대한 만족도 - 3) 행복 빈도

행복에 대한 빈도는 평균 「6.7점」

-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평균 6.7점이며, 분포는 「6점」과 「8점」이 각 20.3%로 가장 높고, 「7점」 20.2%, 「6점」 18.9% 순으로 나타남.
- 평균 만족도는 2025년 6.7점으로 2024년(6.9점) 대비 0.2점 하락함.
- 지역별: 북부권(7.0점), 서남부권(6.9점), 중부권(6.5점)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6.7점)보다 남성(6.8점)의 행복 빈도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15~29세(7.3점)의 행복 빈도가 가장 높고, 70세 이상(6.5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혼인상태별: '미혼'(7.0점) 집단의 행복 빈도가 가장 높고, '사별/이혼'(6.4점) 집단이 가장 낮음.
- 경제활동별: 실업/비경제활동자(6.3점)보다 취업자(6.9점)의 행복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직업별: 사무직(7.8점)의 행복 빈도가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과 기능/노무직(각 6.7점)이 가장 낮았음.

삶에 대한 만족도 - 3) 행복 빈도



[표 2-3] 삶에 대한 만족도 - 3) 행복 빈도 (단위: %, 점)

구 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20년	100.0	0.0	0.1	0.1	0.1	0.4	5.9	11.9	42.1	25.8	8.8	4.7	7.3
2021년	100.0	0.1	0.1	0.3	2.0	4.8	22.5	15.7	25.1	17.9	7.3	4.2	6.6
2022년	100.0	0.1	0.2	0.9	2.9	4.3	27.5	20.2	18.0	14.7	5.8	5.7	6.4
2023년	100.0	0.1	0.3	2.1	2.6	2.7	20.9	21.4	24.2	15.4	6.1	4.2	6.5
2024년	100.0	0.2	0.1	0.2	0.8	3.4	12.7	18.7	28.4	23.3	5.9	6.2	6.9
2025년	100.0	0.1	0.1	0.8	1.6	3.1	18.9	20.3	20.2	20.3	10.5	4.2	6.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4	0.5	0.2	0.7	0.8	8.6	25.7	26.6	23.2	11.3	2.0	7.0
북 부 권	100.0	0.0	0.0	0.7	3.2	3.0	26.9	20.5	18.0	14.5	7.3	5.9	6.5
서 남 부 권	100.0	0.0	0.0	1.4	0.5	4.7	17.6	16.6	18.1	24.1	13.1	3.8	6.9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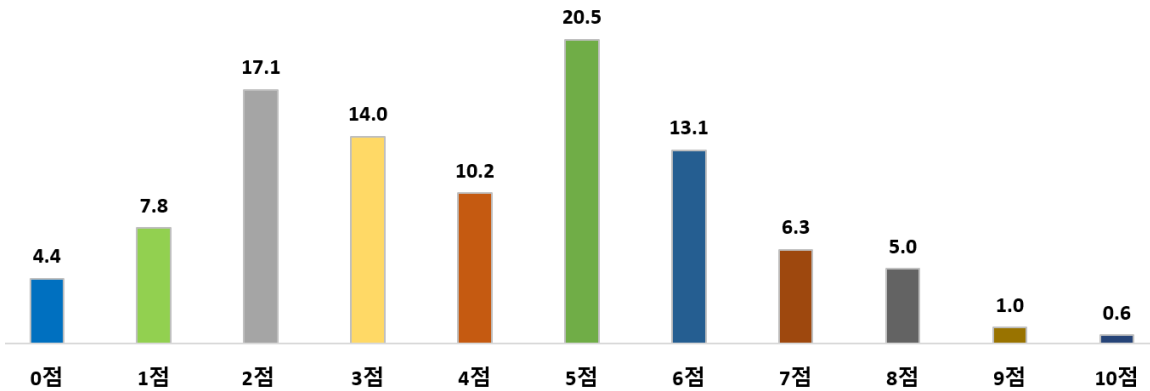
2-4 삶에 대한 만족도 - 4) 걱정 빈도

걱정에 대한 빈도는 평균 「4.1점」

- 어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평균 4.1점이며, 「5점」 20.5%, 「2점」 17.1%, 「3점」 14.0% 순으로 나타남.

- 평균 걱정 빈도는 2025년 4.1점으로 2024년(4.2점) 대비 소폭 감소함.
- 지역별: 중부권(5.0점)의 걱정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북부권과 서남부권은 3.5점으로 동일했음.
- 성별: 여성(4.0점)보다 남성(4.1점)의 걱정 빈도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15~29세(4.6점)의 걱정 빈도가 가장 높고, 50대와 60대(각 3.9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 '배우자 있음'(4.0점) 집단보다 '미혼'(4.4점) 집단의 걱정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별: 실업/비경제활동자(4.0점)보다 취업자(4.1점)의 걱정 빈도가 소폭 높았음.
- 직업별: 농림어업(4.2점) 종사자의 걱정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전문/관리직(3.8점)이 가장 낮았음.

삶에 대한 만족도 - 4) 걱정 빈도



[표 2-4] 삶에 대한 만족도 - 4) 걱정 빈도

(단위: %, 점)

구 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20년	100.0	5.5	9.1	21.2	18.1	11.0	12.3	5.8	11.6	4.2	0.9	0.3	4.8
2021년	100.0	3.1	5.2	14.0	19.0	12.1	23.3	8.4	9.0	4.4	0.9	0.5	4.2
2022년	100.0	4.7	4.0	10.7	11.4	10.9	30.2	10.7	7.7	6.7	1.7	1.4	4.5
2023년	100.0	2.0	5.0	12.6	12.9	10.4	27.4	14.4	9.1	4.0	1.2	0.8	4.5
2024년	100.0	10.7	5.5	10.7	12.6	10.1	18.7	12.1	11.8	5.3	1.2	1.1	4.2
2025년	100.0	4.4	7.8	17.1	14.0	10.2	20.5	13.1	6.3	5.0	1.0	0.6	4.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4	14.8	19.3	15.2	19.3	19.1	6.2	1.3	2.1	1.0	0.2	3.5
북 부 권	100.0	2.0	3.7	10.0	11.1	4.7	27.1	18.1	10.6	9.5	1.7	1.3	5.0
서 남 부 권	100.0	8.8	7.2	22.9	16.1	9.5	14.8	12.5	5.4	2.4	0.4	0.0	3.5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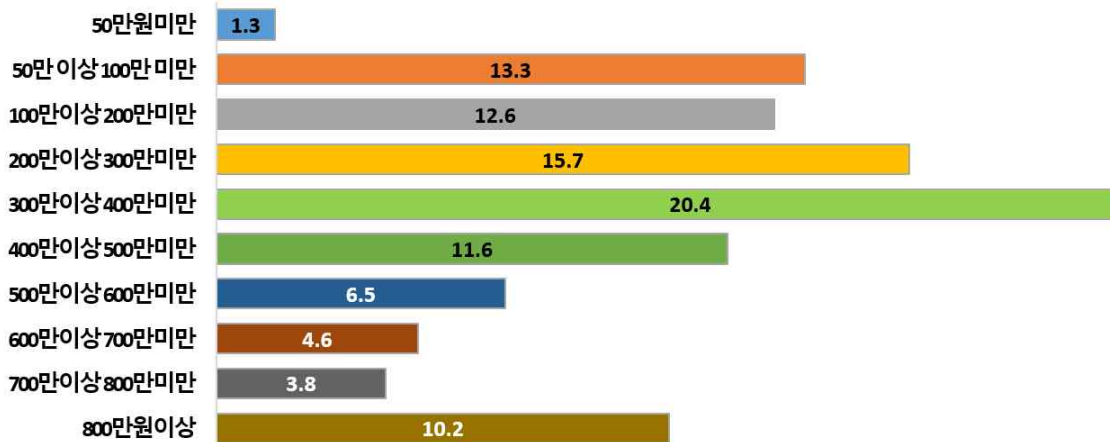
2-5 가구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이 가장 많음

- 세금 납부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300만원~400만원」이 20.4%로 가장 많고, 「200만원~300만원」(15.7%), 「50만원~100만원」(13.3%) 순으로 나타남.

- 2025년 평균 소득은 378.4만원으로 2024년(341.8만원) 대비 36.6만원 증가함.
- 지역별: 서남부권(439.4만원)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북부권(334.7만원), 중부권(334.7만원) 순으로 나타남. 소득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평균 소득 차이는 104.7만원임.
- 성별: 남성 가구주(433.7만원)와 여성 가구주(215.8만원)의 평균 소득 차이는 217.9만원임.
- 연령별: 30대(516.1만원)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고, 70세 이상(230.7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직업별: 서비스/판매직(448.8만원)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고, 전문/관리직(384.8만원)이 가장 낮음.

가구 월평균 소득



[표 2-5]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00만 이상 300만 미만	300만 이상 400만 미만	4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600만 미만	600만 이상 700만 미만	700만 이상 800만 미만	800만 원이상	평균 (만원)
2017년	100.0	11.0	21.1	25.7	18.1	13.7	5.6	2.0	0.6	2.2		209.9
2018년	100.0	7.2	19.5	20.0	23.7	15.8	6.0	2.0	2.4	0.6	2.8	245.4
2019년	100.0	8.4	15.4	18.9	21.8	16.9	7.9	2.9	2.7	0.4	4.6	270.6
2020년	100.0	2.1	13.2	17.9	22.6	18.9	11.7	3.1	2.4	2.1	6.0	315.7
2021년	100.0	2.6	14.8	19.9	22.2	17.7	11.1	2.7	3.9	2.3	2.7	291.6
2022년	100.0	4.9	15.5	14.4	17.1	19.5	9.9	6.1	3.4	3.9	5.4	323.9
2023년	100.0	6.0	15.2	13.7	17.9	16.9	7.3	6.5	4.4	2.8	9.2	339.3
2024년	100.0	2.5	15.5	14.8	18.9	14.5	11.8	8.2	4.2	2.2	7.5	341.8
2025년	100.0	1.3	13.3	12.6	15.7	20.4	11.6	6.5	4.6	3.8	10.2	378.4
< 지역별 >												
중부권	100.0	1.6	11.2	12.7	20.6	19.7	11.9	9.8	6.0	3.3	3.2	348.5
북부권	100.0	1.3	18.4	16.3	18.8	15.9	9.0	4.9	3.3	3.1	9.0	334.7
서남부권	100.0	1.2	9.5	9.0	9.7	25.2	13.9	6.2	4.9	4.8	15.7	439.4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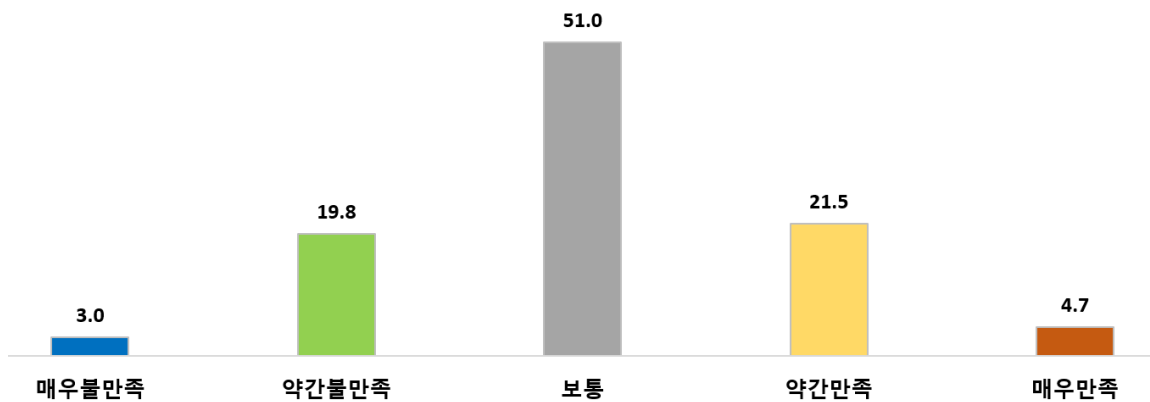
2-6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1.0%)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매우+약간 만족) (26.2%)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22.8%)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20.2%에서 2025년 26.2%로 소폭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 응답은 서남부권(32.1%), 북부권(29.5%), 중부권(18.1%)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 응답은 남자(28.9%)가 여자(22.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층에서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불만족」 응답은 70세 이상 (27.9%)에서 가장 높고, 「만족」 응답은 50대(36.9%)에서 가장 높음.
- 직업별: 「만족」 응답은 전문/관리직(41.4%)에서 가장 많고, 「불만족」 응답은 농림어업(23.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소득에 대한 만족도



[표 2-6] 현재소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해당있음							해당없음 (소득없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 0 2 1 년	100.0	94.2	100.0	3.3	23.8	53.2	13.5	6.3	5.8
2 0 2 3 년	100.0	94.4	100.0	4.0	19.2	56.6	13.6	6.6	5.6
2 0 2 5 년	100.0	95.7	100.0	3.0	19.8	51.0	21.5	4.7	4.3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95.6	100.0	2.4	18.4	49.7	27.2	2.3	4.4
북 부 권	100.0	94.6	100.0	5.7	26.2	50.1	14.9	3.2	5.4
서 남 부 권	100.0	96.9	100.0	0.6	14.3	52.9	24.4	7.7	3.1
< 성 별 >									
남 자	100.0	97.2	100.0	2.6	18.7	49.7	23.8	5.1	2.8
여 자	100.0	93.8	100.0	3.5	21.2	52.6	18.6	4.1	6.2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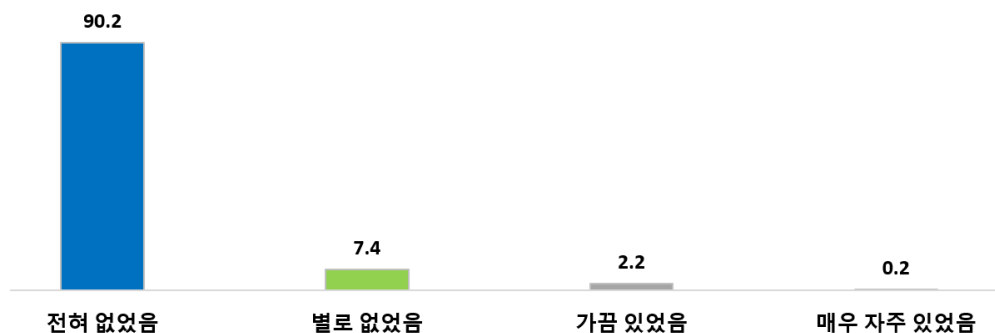
2-7 생계유지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생계유지 어려움 없는 편

- 2025년 응답자의 2.4%가 생계유지 어려움을 경험함. 「전혀 없었음」 응답이 90.2%로 가장 많음. 어려움을 「겪었음」(가끔+자주) 응답은 2.4%, 「없었음」(전혀+별로) 응답은 97.6%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어려움을 「겪었음」(별로+전혀) 응답은 2023년 36.3%에서 2025년 2.4%로 감소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어려움이 「없었음」 응답이 더 많았으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중부권(4.1%), 북부권(2.4%), 서남부권(0.7%)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2.0%)보다 남성(2.8%)이 소폭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함.
- 연령별: 어려움 경험(「겪었음」)이 높은 집단은 30대(5.7%)로 분석됨.
- 경제활동별: 취업자(1.8%)보다 실업/비경제활동자(4.9%)가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함.
- 직업별: 전문/관리직(3.3%)의 어려움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생계유지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표 2-7] 생계유지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단위: %)

구 분	계	전혀 없었음	별로 없었음	가끔 있었음	매우 자주 있었음
2021년	100.0	13.7	46.3	35.4	4.7
2023년	100.0	15.9	47.7	32.0	4.3
2025년	100.0	90.2	7.4	2.2	0.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81.1	16.5	1.9	0.5
북 부 권	100.0	91.4	4.6	3.9	0.2
서 남 부 권	100.0	95.0	4.3	0.7	0.0
< 성 별 >					
남 자	100.0	89.9	7.3	2.4	0.4
여 자	100.0	90.5	7.5	2.0	0.0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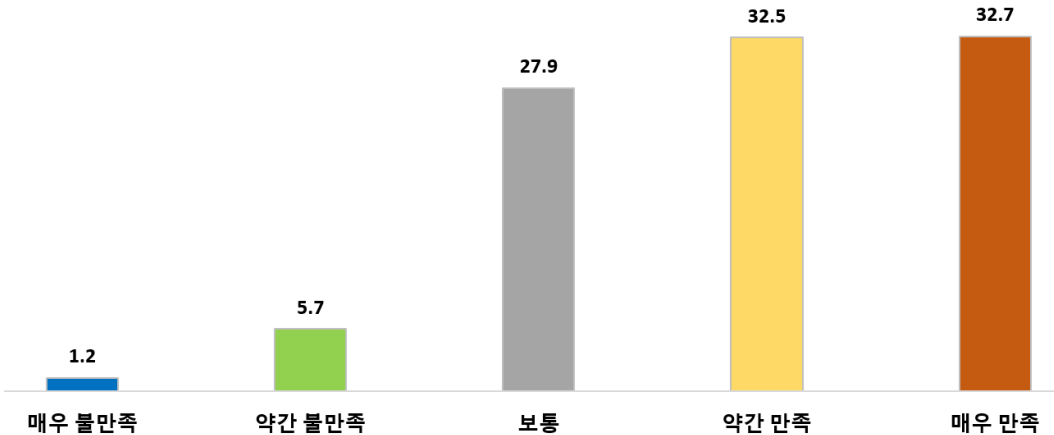
2-8 주거환경 만족도 - 1)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만족함」

-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만족도는 「만족」(매우+약간 만족)(65.2%)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27.9%),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6.9%)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46.2%에서 2025년 65.2%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도는 북부권(76.8%), 중부권(66.7%), 서남부권(55.8%)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남성(64.5%)보다 여성(65.9%)의 만족도가 소폭 높았음.
- 연령별: 30대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음. 15~29세(73.8%)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30대(56.6%)에서 가장 낮았음.

주거환경 만족도 - 1)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표 2-8] 주거환경 만족도 - 1)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21년	100.0	1.9	9.4	51.6	20.7	16.4
2023년	100.0	2.1	5.1	46.6	27.9	18.3
2025년	100.0	1.2	5.7	27.9	32.5	32.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4	2.8	16.0	43.8	33.0
북 부 권	100.0	0.3	5.9	27.2	25.0	41.7
서 남 부 권	100.0	0.0	7.5	36.7	32.6	23.2
< 성 별 >						
남 자	100.0	0.7	5.8	28.9	30.7	33.8
여 자	100.0	1.8	5.6	26.7	34.6	31.3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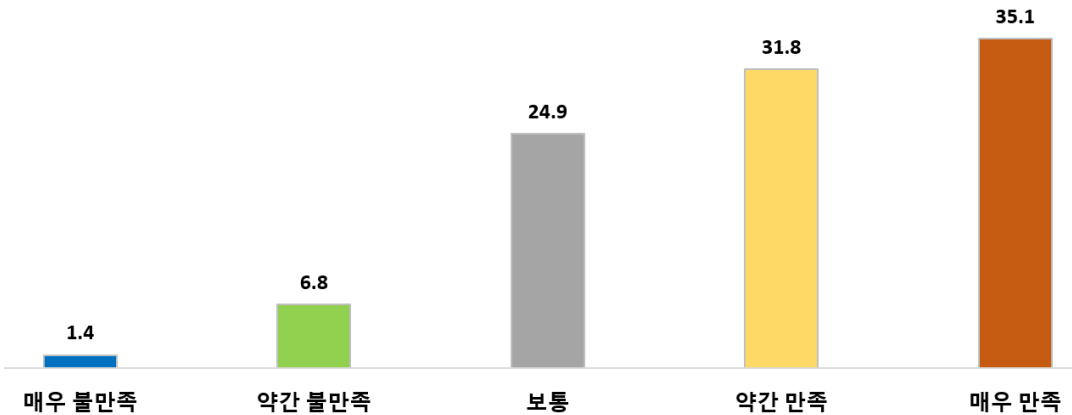
2-9 주거환경 만족도 - 2)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만족함」

-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만족도는 「만족」(매우+약간 만족)(66.9%)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24.9%),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8.2%)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49.1%에서 2025년 66.9%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도는 북부권(84.5%), 중부권(70.4%), 서남부권(51.5%)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남성(66.0%)보다 여성(67.9%)의 만족도가 소폭 높았음.
- 연령별: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음. 만족도는 15~29세(78.6%)에서 가장 높고 30대(52.0%)에서 가장 낮았음.

주거환경 만족도 - 2)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표 2-9] 주거환경 만족도 - 2)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21년	100.0	0.8	4.4	52.6	25.7	16.4
2023년	100.0	1.1	3.7	46.2	30.5	18.6
2025년	100.0	1.4	6.8	24.9	31.8	35.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3	3.1	12.0	40.4	44.1
북 부 권	100.0	1.5	3.4	24.7	24.8	45.6
서 남 부 권	100.0	2.0	12.7	33.9	33.3	18.2
< 성 별 >						
남 자	100.0	0.8	7.5	25.7	30.5	35.5
여 자	100.0	2.1	5.9	24.1	33.4	34.5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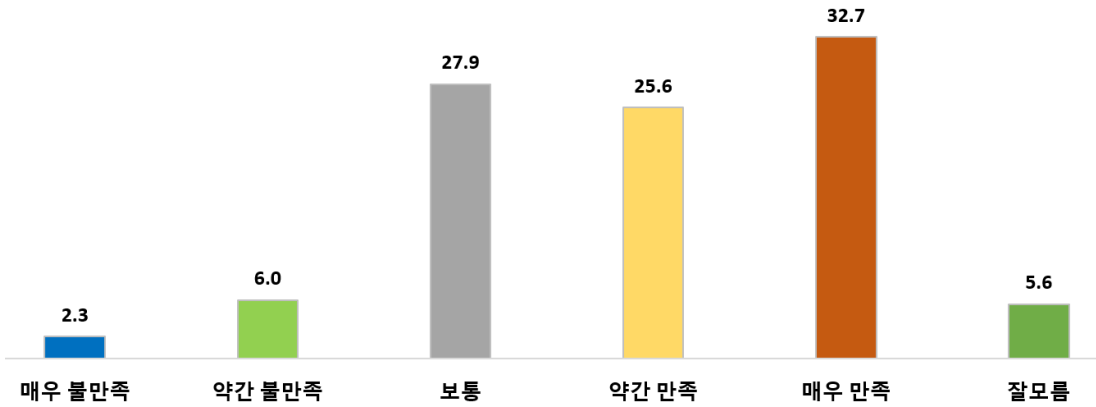
2-10 주거환경 만족도 - 3)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만족함」

•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만족도는 「만족」(58.3%) 응답이 가장 많고, 「보통」 27.9%, 「불만족」 8.3%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43.7%에서 2025년 58.3%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도는 중부권(65.6%), 북부권(64.0%), 서남부권(47.0%)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여성(54.6%)보다 남성(61.4%)의 만족도가 높았음.
- 연령별: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도는 60~69세(65.0%)에서 가장 높고 40대(53.0%)에서 가장 낮았음.

주거환경 만족도 - 3)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표 2-10] 주거환경 만족도 - 3)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2 0 2 1 년	100.0	3.1	8.3	48.3	19.7	13.2	7.3
2 0 2 3 년	100.0	1.8	5.6	43.2	25.1	18.6	5.7
2 0 2 5 년	100.0	2.3	6.0	27.9	25.6	32.7	5.6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4.2	7.5	18.2	29.7	34.3	6.2
북 부 권	100.0	0.6	3.3	25.8	21.0	44.6	4.7
서 남 부 권	100.0	2.6	7.7	36.7	27.4	19.6	6.1
< 성 별 >							
남 자	100.0	1.6	6.2	27.3	25.8	35.6	3.5
여 자	100.0	3.0	5.7	28.7	25.2	29.4	8.1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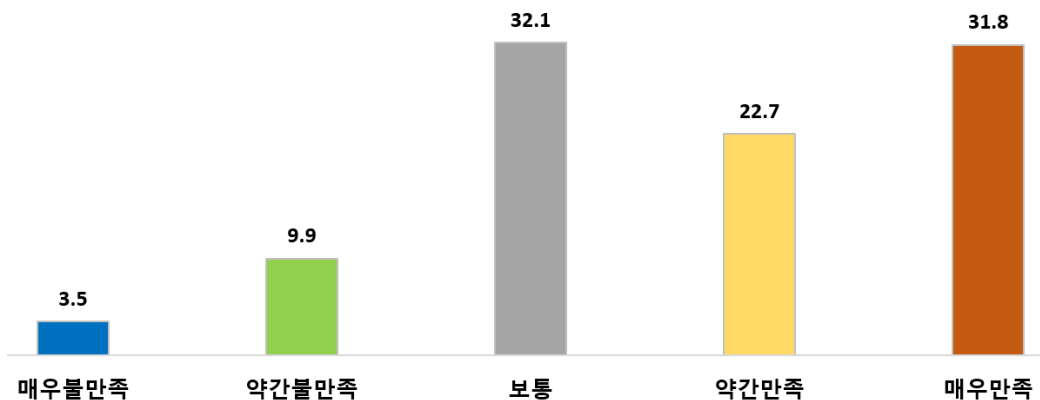
2-11 교통수단 만족도 - 1) 시내버스/마을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만족함」

- 2025년 신안군민의 시내버스/마을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매우+약간 만족)(54.5%)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32.1%),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13.4%)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59.8%에서 2025년 54.5%로 소폭 감소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음. 만족도는 중부권(59.6%), 북부권(52.9%), 서남부권(51.8%)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남성(48.6%)보다 여성(59.1%)의 만족도가 높았음.
- 연령별: 30대와 40대는 「보통」, 다른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음. 만족도는 70세 이상(63.6%)에서 가장 높고 15~29세(47.2%)에서 가장 낮았음.

교통수단 만족도 - 1) 시내버스/마을버스



[표 2-11] 교통수단 만족도 - 1) 시내버스/마을버스

(단위: %)

구 분	계	해당있음							해당없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21년	100.0	78.1	100.0	1.2	8.6	49.7	17.2	23.4	21.9
2023년	100.0	84.9	100.0	1.6	3.5	35.1	25.6	34.2	15.1
2025년	100.0	47.6	100.0	3.5	9.9	32.1	22.7	31.8	52.4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0.3	100.0	0.9	11.3	35.0	21.3	31.6	59.7
북 부 권	100.0	41.6	100.0	7.3	16.1	17.1	15.2	44.4	58.4
서 남 부 권	100.0	58.8	100.0	1.9	4.8	41.5	28.9	22.9	41.2
< 성 별 >									
남 자	100.0	37.8	100.0	3.9	7.4	40.0	21.3	27.3	62.2
여 자	100.0	59.2	100.0	3.1	11.8	26.1	23.8	35.3	40.8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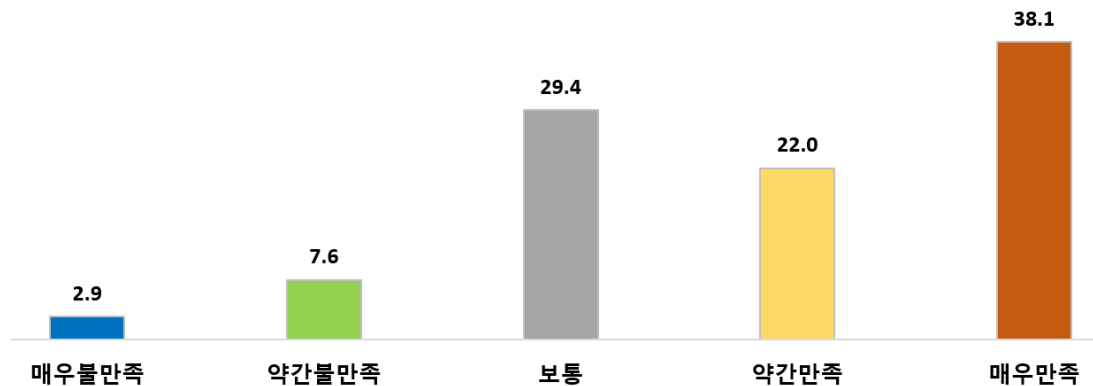
2-12 교통수단 만족도 - 2) 시외/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만족함」

- 2025년 신안군민의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매우+약간 만족) (60.1%)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29.4%),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 (10.5%)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50.6%에서 2025년 60.1%로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72.7%), 중부권(59.0%), 북부권(44.4%)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남성(53.7%)보다 여성(65.4%)의 만족도가 높았음.
- 연령별: 30대는 「보통」, 그 외 연령층은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음. 만족도는 70세 이상(71.7%)에서 가장 높고 30대(14.2%)에서 가장 낮았음.

교통수단 만족도 - 2) 시외/고속버스



[표 2-12] 교통수단 만족도 - 2) 시외/고속버스

(단위: %)

구 분	계	해당있음							해당없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21년	100.0	56.0	100.0	1.9	12.1	53.8	16.4	15.8	44.0
2023년	100.0	66.0	100.0	1.5	6.5	41.4	24.1	26.5	34.0
2025년	100.0	37.8	100.0	2.9	7.6	29.4	22.0	38.1	62.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2.8	100.0	0.0	11.8	43.8	17.0	27.4	57.2
북 부 권	100.0	33.4	100.0	8.6	12.7	19.6	11.8	47.2	66.6
서 남 부 권	100.0	38.9	100.0	0.0	0.0	27.3	34.5	38.2	61.1
< 성 별 >									
남 자	100.0	31.7	100.0	3.8	5.6	36.9	20.3	33.4	68.3
여 자	100.0	45.0	100.0	2.1	9.3	23.1	23.3	42.1	55.0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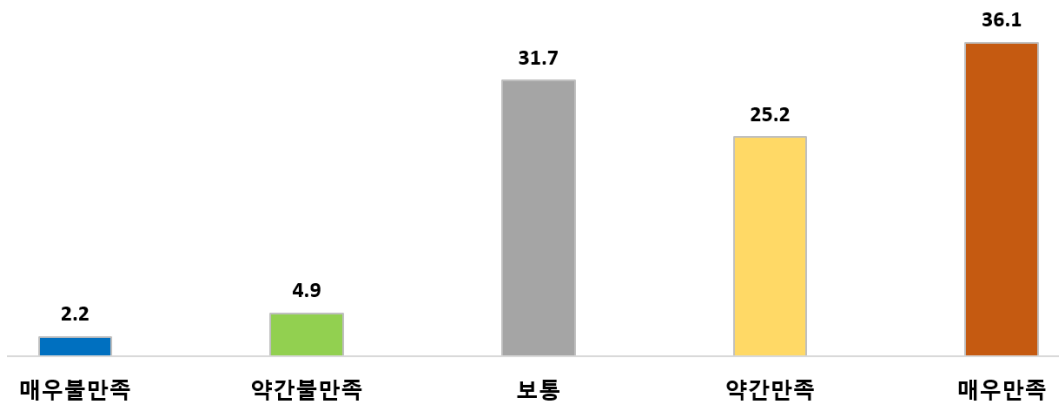
2-13 교통수단 만족도 - 3) 택시

택시 「만족함」

- 2025년 신안군민의 택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매우+약간 만족)(61.3%)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31.7%),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7.1%)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70.9%에서 2025년 61.3%로 감소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도는 중부권(65.8%), 북부권(60.8%), 서남부권(58.5%)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남성(55.1%)보다 여성(66.3%)의 만족도가 높았음.
- 연령별: 30대와 40대는 「보통」, 다른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만족」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음. 만족도는 70세 이상(69.7%)에서 가장 높고 30대(21.1%)에서 가장 낮았음.

교통수단 만족도 - 3) 택시



[표 2-13] 교통수단 만족도 - 3) 택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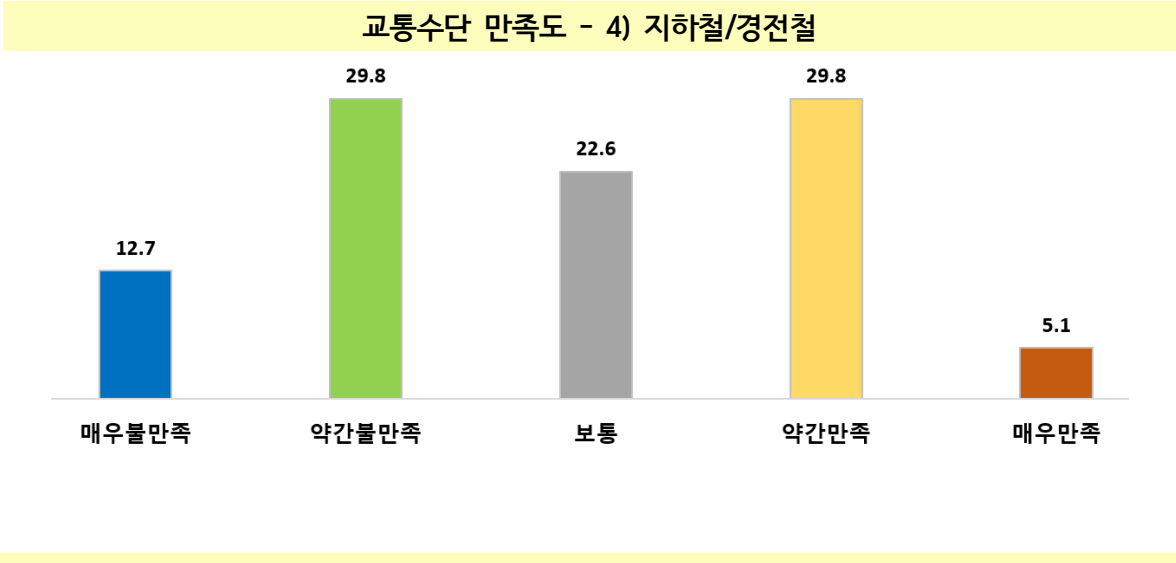
구 분	계	해당있음							해당없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 0 2 1 년	100.0	78.5	103.0	0.3	3.6	51.2	18.3	26.6	21.5
2 0 2 3 년	100.0	87.2	100.0	1.4	1.5	26.1	36.0	34.9	12.8
2 0 2 5 년	100.0	54.5	100.0	2.2	4.9	31.7	25.2	36.1	45.5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52.8	100.0	0.0	1.3	37.9	22.4	38.4	47.2
북 부 권	100.0	43.0	100.0	4.9	8.8	20.5	16.8	49.0	57.0
서 남 부 권	100.0	67.4	100.0	1.6	4.3	35.7	32.1	26.4	32.6
< 성 별 >									
남 자	100.0	44.9	100.0	3.2	2.5	39.2	25.0	30.1	55.1
여 자	100.0	65.9	100.0	1.3	6.8	25.6	25.4	40.9	34.1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2-14 교통수단 만족도 - 4) 지하철/경전철

지하철/경전철 만족도 「해당없음」

- 2025년 기준, 응답자 중 지하철/경전철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으며, 98.1%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신안군에 지하철/경전철이 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광주 등 타 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으로 보임
- 이용 경험이 있는 소수 응답자(전체의 1.9%) 중에서는 「불만」(매우+약간 불만족)(42.5%) 응답이 가장 많고, 「만족」(매우+약간 만족) 34.9%, 「보통」 22.6% 순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음. 이는 해당 교통수단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음.



[표 2-14] 교통수단 만족도 - 4) 지하철/경전철 (단위: %)

구 분	계	해당있음							해당없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21년	100.0	3.3	100.0	11.5	3.7	43.3	32.6	9.1	96.7
2023년	100.0	2.8	100.0	23.2	0.0	11.8	35.9	29.1	97.2
2025년	100.0	1.9	100.0	12.7	29.8	22.6	29.8	5.1	98.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1	100.0	0.0	0.0	64.3	0.0	35.7	98.9
북 부 권	100.0	0.8	100.0	80.7	0.0	0.0	19.3	0.0	99.2
서 남 부 권	100.0	3.6	100.0	0.0	42.6	19.2	38.2	0.0	96.4
< 성 별 >									
남 자	100.0	1.5	100.0	0.0	68.2	31.8	0.0	0.0	98.5
여 자	100.0	2.3	100.0	22.6	0.0	15.4	53.0	9.0	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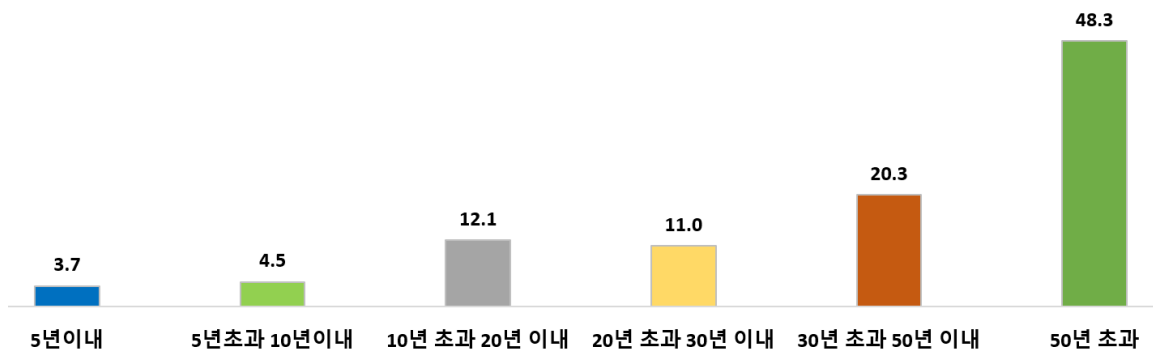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2-15 전남지역에서 거주한 총 기간

전남지역 30년 이상 장기 거주 68.6%

- 2025년 전남지역 총 거주 기간은 「50년 초과」가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3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인구(30~50년+50년 초과)는 전체의 68.6%에 달함.
- 「30년 초과」 장기 거주자 비율은 2023년 68.9%에서 2025년 68.6%로 소폭 감소함.
- 지역별: 「30년 초과」 장기 거주자 비율은 서남부권(69.6%), 중부권(69.2%), 북부권(66.1%)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66.4%)보다 여성(71.1%)의 「30년 초과」 장기 거주자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 거주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94.2%가 장기 거주자로 나타남.
- 직업별: 농림어업(79.9%) 종사자의 장기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42.0%)에서 가장 낮았음.

전남지역에서 거주한 총 기간



[표 2-15] 전남지역에서 거주한 총 기간

(단위: %)

구 분	계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20년 이내	20년 초과 30년 이내	30년 초과 50년 이내	50년 초과
2021년	100.0	4.4	4.0	11.5	8.4	22.5	49.4
2023년	100.0	5.7	5.0	8.3	12.1	22.5	46.4
2025년	100.0	3.7	4.5	12.1	11.0	20.3	48.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3	7.1	13.4	11.1	18.8	47.3
북 부 권	100.0	4.9	4.1	11.6	10.2	20.2	49.0
서 남 부 권	100.0	3.6	3.2	11.7	11.9	21.5	48.1
< 성 별 >							
남 자	100.0	4.2	3.8	11.4	14.3	23.3	43.1
여 자	100.0	3.2	5.5	13.0	7.2	16.8	54.3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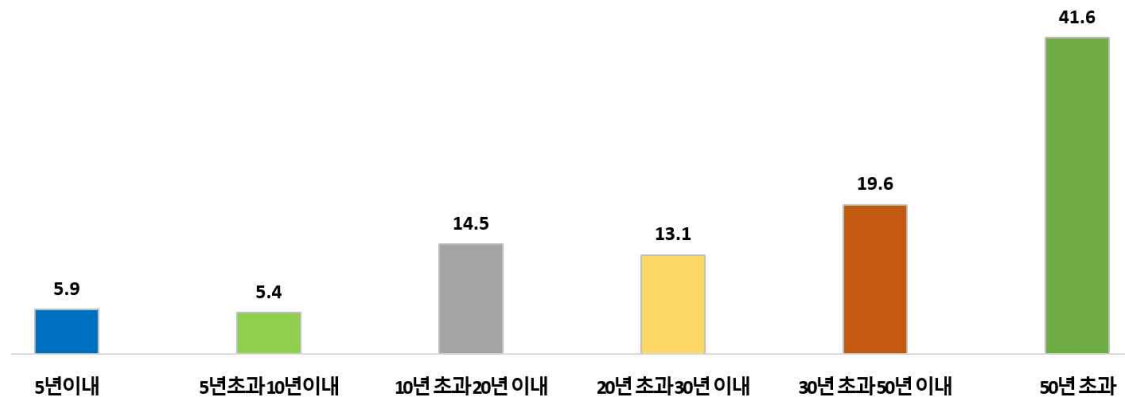
2-16 현재 전남 시군에서 거주한 총 기간

신안군 30년 이상 장기 거주 61.2%

- 2025년 신안군 총 거주 기간은 「50년 초과」가 4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3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인구(30~50년+50년 초과)는 전체의 61.2%에 달함.

- 「30년 초과」 장기 거주자 비율은 2023년 64.7%에서 2025년 61.2%로 소폭 감소함.
- 지역별: 장기 거주자 비율은 서남부권(63.8%), 북부권(61.8%), 중부권(58.3%)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57.5%)보다 여성(65.5%)의 장기 거주자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 거주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92.3%가 장기 거주자로 나타남.
- 직업별: 농림어업(72.1%) 종사자의 장기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관리직(32.8%)에서 가장 낮았음.

현재 전남 시군에서 거주한 총 기간



[표 2-16] 현재 전남 시군에서 거주한 총 기간

(단위: %)

구 분	계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20년 이내	20년 초과 30년 이내	30년 초과 50년 이내	50년 초과
2021년	100.0	5.8	5.1	14.4	9.3	21.1	44.2
2023년	100.0	9.0	6.6	9.7	10.0	21.8	42.9
2025년	100.0	5.9	5.4	14.5	13.1	19.6	41.6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7	7.4	15.9	10.3	19.0	42.8
북 부 권	100.0	7.7	5.6	14.8	13.6	16.8	41.5
서 남 부 권	100.0	4.8	3.9	13.1	14.3	23.0	40.8
< 성 별 >							
남 자	100.0	6.5	5.0	14.3	16.7	21.6	35.9
여 자	100.0	5.1	5.9	14.7	8.8	17.3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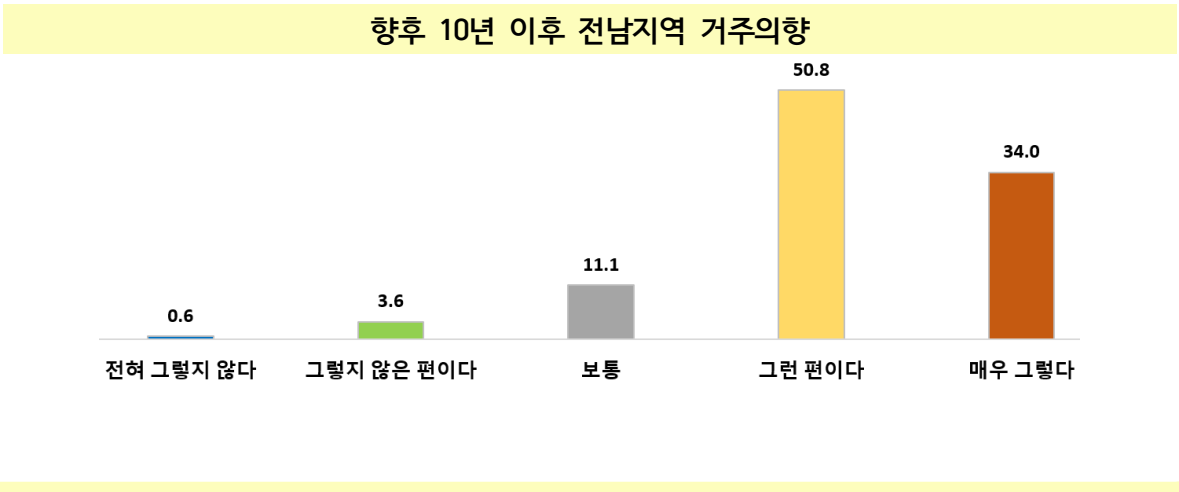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2-17 향후 10년 이후 전남지역 거주 의향

전남지역 거주 의향 「그렇다」 84.8%

- 향후 10년 이후에도 전남지역 거주 의향에 대해 「있음」(그런 편+매우 그렇다) (84.8%)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보통」(11.1%), 「없음」(전혀+그렇지 않은 편) (4.2%) 순으로 나타남.

- 「거주 의향 있음」 응답은 2023년 74.0%에서 2025년 84.8%로 증가함.
- 지역별: 「거주 의향 있음」 응답은 서남부권(91.4%), 북부권(83.5%), 중부권(79.2%)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84.9%)과 여성(84.7%)의 거주 의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층(92.1%)과 15~29세 청년층(65.1%)의 의향 차이가 있음.
- 직업별: 기능/노무(88.9%) 종사자의 거주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판매직(72.2%)에서 가장 낮았음.



[표 2-17] 향후 10년 이후 전남지역 거주 의향 (단위: %)

구 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1년	100.0	2.2	7.0	14.6	41.2	35.0
2023년	100.0	0.5	2.9	22.7	41.9	32.1
2025년	100.0	0.6	3.6	11.1	50.8	34.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8	3.1	12.6	53.2	30.3
북 부 권	100.0	0.8	5.5	14.4	37.0	42.2
서 남 부 권	100.0	0.1	2.0	6.5	63.3	28.1
< 성 별 >						
남 자	100.0	0.4	3.4	11.3	52.0	32.9
여 자	100.0	0.7	3.8	10.8	49.3	35.4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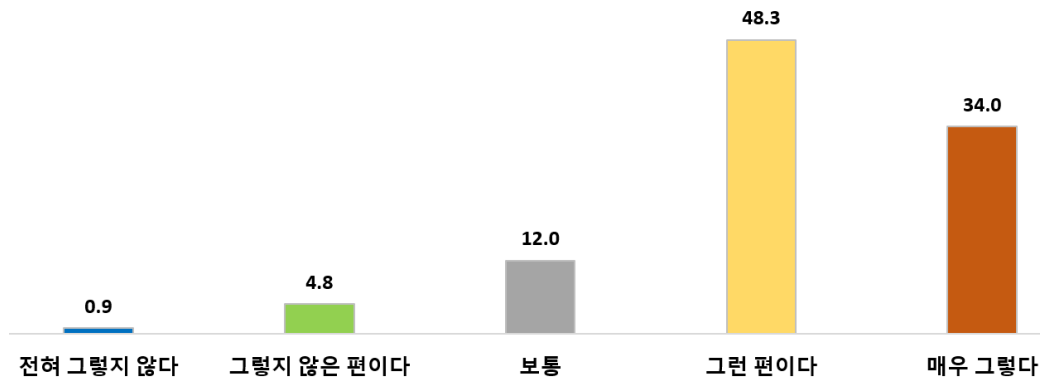
2-18 향후 10년 이후 현재 시군 거주의향

신안군 거주 의향 「그렇다」 82.3%

- 향후 10년 이후에도新安군 거주 의향에 대해 「있음」(그런 편+매우 그렇다) (82.3%)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보통」(12.0%), 「없음」(전혀+그렇지 않은 편) (5.7%) 순으로 나타남.

- 「거주의향 있음」 응답은 2023년 72.3%에서 2025년 82.3%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거주의향 있음」 응답은 북부권(86.9%), 서남부권(85.7%), 중부권(76.0%)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80.4%)보다 여성(84.5%)의 거주의향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층(91.9%)과 15~29세 청년층(44.9%)의 의향 차이가 있음.
- 직업별: 기능/노무(88.4%) 종사자의 거주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63.6%)에서 가장 낮았음.

향후 10년 이후 현재 시군 거주의향



[표 2-18] 향후 10년 이후 현재 시군 거주의향

(단위: %)

구 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1년	100.0	2.6	6.2	16.6	40.0	34.6
2023년	100.0	0.9	5.1	21.6	41.7	30.6
2025년	100.0	0.9	4.8	12.0	48.3	34.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0	3.9	9.2	56.4	30.5
북 부 권	100.0	2.2	6.7	15.1	33.5	42.5
서 남 부 권	100.0	0.1	3.5	10.7	58.0	27.7
< 성 별 >						
남 자	100.0	0.7	5.5	13.4	47.6	32.8
여 자	100.0	1.1	4.0	10.3	49.1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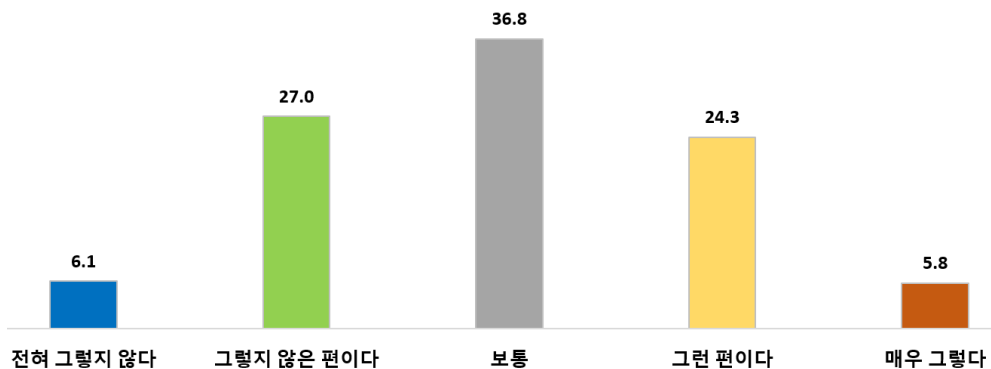
자료: 2025년新安군 사회조사

2-19 지역내 일자리 기회의 충분여부

지역 내 일자리 기회는 「보통」

- 2025년 신안군민의 지역 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인식은 「보통」(36.8%)이 가장 많았으며, 기회가 「부족하다」(전혀+아닌 편)(33.1%)는 응답이 「충분하다」(그런 편+매우)(30.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2023년 43.8%에서 2025년 33.1%로 감소함.
- 지역별: 북부권(44.8%)은 「충분하다」, 중부권(35.4%)은 「부족하다」, 서남부권(47.0%)은 「보통」 응답이 가장 많음.
- 성별: 남녀 모두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부족하다」는 응답은 남성(33.0%)과 여성(33.1%)에게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연령별: 15~29세와 30대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60대는 「충분하다」 응답이 우세했으나,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이 주된 응답이었음.
- 경제활동별: 취업자와 실업/비경제활동자 모두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부족하다」는 응답은 실업/비경제활동자(43.0%)에서 더 높게 나타남.

지역내 일자리 기회의 충분여부



[표 2-19] 지역내 일자리 기회의 충분 여부

(단위: %)

구 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1년	100.0	5.4	30.1	42.9	19.5	2.0
2023년	100.0	10.6	33.2	38.3	14.2	3.8
2025년	100.0	6.1	27.0	36.8	24.3	5.8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5	29.5	25.2	43.2	1.6
북 부 권	100.0	7.2	28.2	34.5	20.7	9.4
서 남 부 권	100.0	8.6	24.0	47.0	15.4	5.0
< 성 별 >						
남 자	100.0	5.4	27.6	36.0	24.5	6.5
여 자	100.0	6.9	26.2	37.8	24.1	4.9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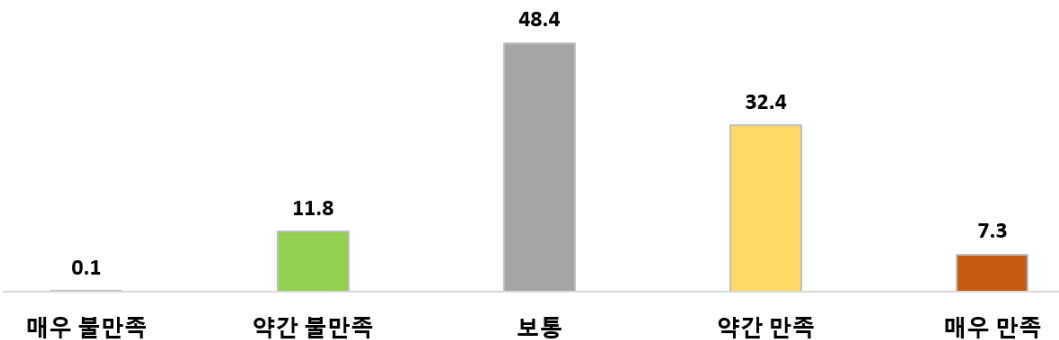
2-20 일자리 만족도 - 1)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현재 일(직장)의 하는 일 만족도 「보통」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안군민의 만족도는 「보통」(48.4%)이 가장 많았고, 「만족」(매우+약간 만족)(39.7%),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11.9%)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23.6%에서 2025년 39.7%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 응답은 북부권(45.1%), 중부권(39.7%), 서남부권(3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남성(39.4%)보다 여성(40.1%)의 만족도가 소폭 높았음.
- 연령별: 15~29세는 「만족」 응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음.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직업별: 전문/관리직과 서비스/판매직은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일자리 만족도 - 1)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표 2-20] 일자리 만족도 - 1)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단위: %)

구 분	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 0 2 1 년	100.0	76.7	100.0	1.1	12.3	62.5	16.9	7.2	23.3
2 0 2 3 년	100.0	78.5	100.0	0.7	9.2	66.6	18.3	5.3	21.5
2 0 2 5 년	100.0	80.1	100.0	0.1	11.8	48.4	32.4	7.3	19.9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74.8	100.0	0.0	7.4	47.5	40.3	4.8	25.2
북 부 권	100.0	79.8	100.0	0.0	12.1	48.3	28.9	10.8	20.2
서 남 부 권	100.0	84.0	100.0	0.3	14.2	49.1	31.0	5.4	16.0
< 성 별 >									
남 자	100.0	86.7	100.0	0.1	11.4	49.1	32.0	7.4	13.3
여 자	100.0	72.3	100.0	0.1	12.4	47.5	33.0	7.1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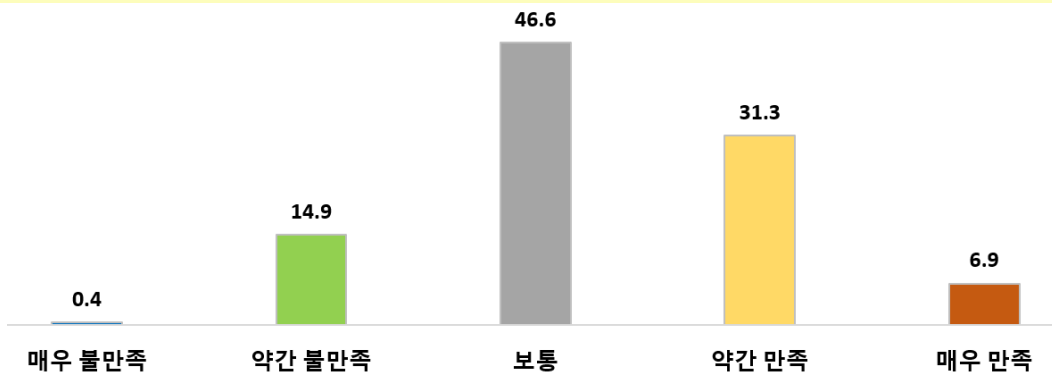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2-21 일자리 만족도 - 2) 임금/가구소득(일에 비해)

현재 일(직장)의 임금/가구소득 만족도 「보통」

- 2025년 신안군민의 임금/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6.6%)이 가장 많았고, 「만족」(매우+약간 만족)(38.2%),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15.3%)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23.2%에서 2025년 38.2%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북부권은 「만족」(45.0%)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48.6%)과 서남부권(46.2%)은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여성(36.2%)보다 남성(39.4%)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
- 연령별: 40대와 50대는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직업별: 전문/관리직과 기능/노무직은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일자리 만족도 - 2) 임금/가구소득(일에 비해)



[표 2-21] 일자리 만족도 - 2) 임금/가구소득(일에 비해)

(단위: %)

구 분	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2 0 2 1 년	100.0	76.7	100.0	2.1	19.3	55.7	16.2	6.7	23.3
2 0 2 3 년	100.0	78.5	100.0	1.5	16.8	58.5	15.7	7.5	21.5
2 0 2 5 년	100.0	80.1	100.0	0.4	14.9	46.6	31.3	6.9	19.9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74.8	100.0	0.0	11.1	43.9	41.0	4.0	25.2
북 부 권	100.0	79.8	100.0	1.0	19.6	48.6	22.6	8.3	20.2
서 남 부 권	100.0	84.0	100.0	0.1	12.6	46.2	33.8	7.2	16.0
< 성 별 >									
남 자	100.0	86.7	100.0	0.6	15.4	44.5	32.6	6.8	13.3
여 자	100.0	72.3	100.0	0.1	14.2	49.5	29.3	6.9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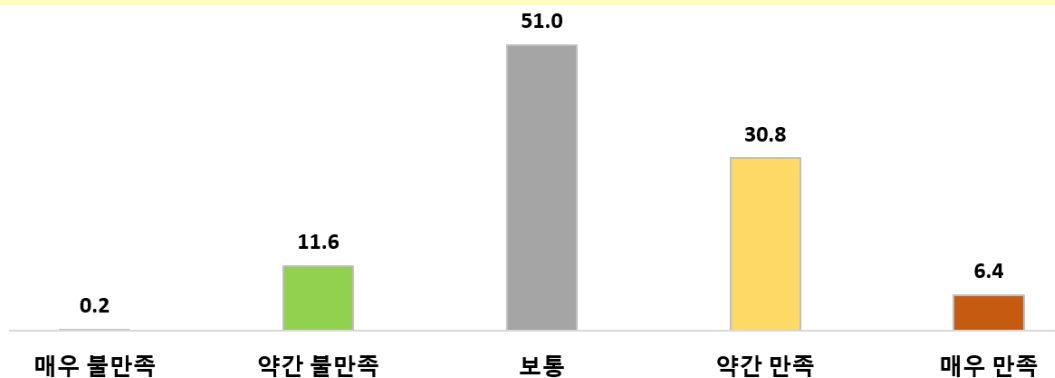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2-22 일자리 만족도 - 3) 근로시간

현재 일(직장)의 근로시간 만족도 「보통」

- 2025년 신안군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1.0%)이 가장 많았고, 「만족」(매우+약간 만족)(37.2%),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11.8%)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24.2%에서 2025년 37.2%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 응답은 북부권(46.5%), 중부권(34.6%), 서남부권(3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남성(37.1%)보다 여성(37.4%)의 만족도가 소폭 높았음.
- 연령별: 15~29세는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직업별: 전문/관리직은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일자리 만족도 - 3) 근로시간



[표 2-22] 일자리 만족도 - 3) 근로시간

(단위: %)

구 분	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 0 2 1 년	100.0	76.7	100.0	0.8	12.2	62.3	17.7	7.1	23.3
2 0 2 3 년	100.0	78.5	100.0	0.9	7.4	67.5	19.4	4.8	21.5
2 0 2 5 년	100.0	80.1	100.0	0.2	11.6	51.0	30.8	6.4	19.9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74.8	100.0	0.0	5.7	47.7	42.3	4.2	25.2
북 부 권	100.0	79.8	100.0	0.2	15.0	50.2	25.8	8.8	20.2
서 남 부 권	100.0	84.0	100.0	0.3	11.7	53.8	28.8	5.3	16.0
< 성 별 >									
남 자	100.0	86.7	100.0	0.0	11.1	51.9	31.0	6.1	13.3
여 자	100.0	72.3	100.0	0.5	12.2	49.8	30.6	6.8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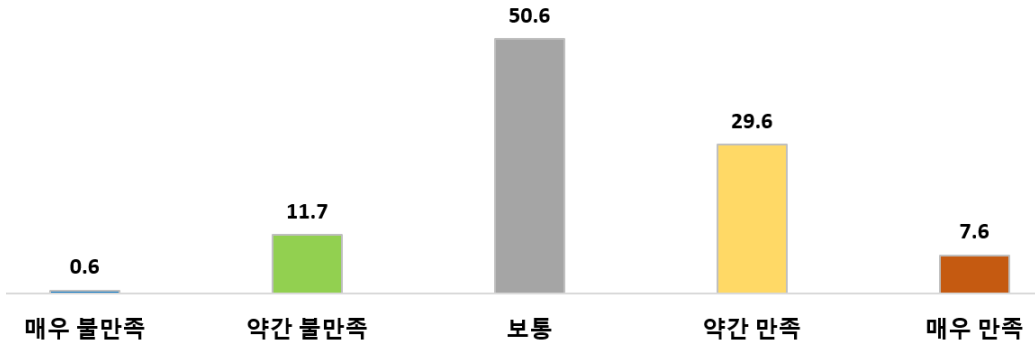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2-23 일자리 만족도 - 4) 근무환경

현재 일(직장)의 근무환경 만족도 「보통」

- 2025년 신안군민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0.6%)이 가장 많았고, 「만족」(매우+약간 만족)(37.2%),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12.3%)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23.2%에서 2025년 37.2%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만족」 응답은 북부권(44.9%), 서남부권(35.5%), 중부권(3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남성(37.2%)과 여성(37.1%)의 만족도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별: 15~29세는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직업별: 전문/관리직은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일자리 만족도 - 4) 근무환경



[표 2-23] 일자리 만족도 - 4) 근무환경

(단위: %)

구 분	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21년	100.0	76.7	100.0	0.8	11.8	62.9	18.2	6.3	23.3
2023년	100.0	78.5	100.0	1.1	8.0	67.8	18.3	4.9	21.5
2025년	100.0	80.1	100.0	0.6	11.7	50.6	29.6	7.6	19.9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74.8	100.0	0.4	5.5	49.2	40.0	4.9	25.2
북 부 권	100.0	79.8	100.0	0.8	15.0	50.2	25.0	9.1	20.2
서 남 부 권	100.0	84.0	100.0	0.5	12.1	51.9	27.8	7.7	16.0
< 성 별 >									
남 자	100.0	86.7	100.0	0.8	10.9	51.2	29.7	7.5	13.3
여 자	100.0	72.3	100.0	0.3	12.8	49.8	29.4	7.7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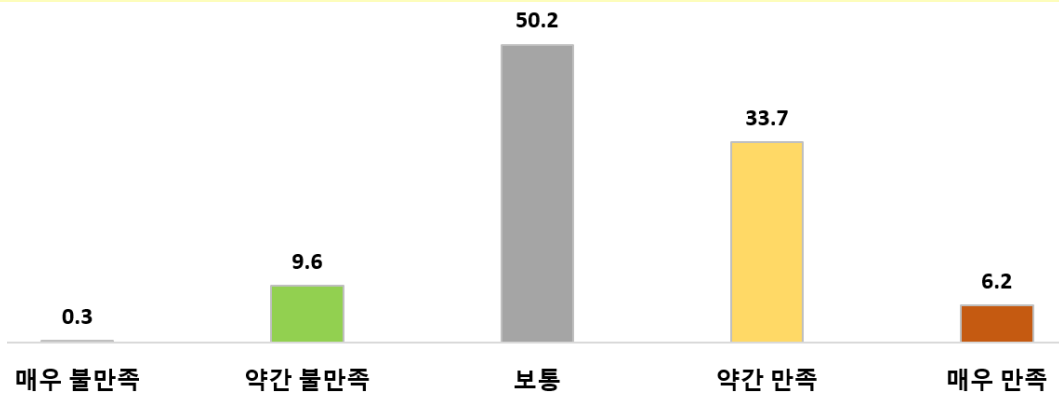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2-24 일자리 만족도 - 5) 전반적인 만족도

현재 일(직장)의 전반적인 만족도 「보통」

- 2025년 신안군민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50.2%)이 가장 많았고, 「만족」(매우+약간 만족)(39.9%),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9.9%) 순으로 나타남.
- 「만족」 응답은 2023년 23.6%에서 2025년 39.9%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북부권은 「만족」(48.5%)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53.0%), 중부권(49.5%)은 「보통」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녀 모두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이었으며, 남성(39.7%)보다 여성(40.3%)의 만족도가 소폭 높았음.
- 연령별: 40대는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음.
- 직업별: 전문/관리직은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일자리 만족도 - 5) 전반적인 만족도



[표 2-24] 일자리 만족도 - 5)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 0 2 1 년	100.0	76.7	100.0	0.7	10.2	64.5	17.3	7.4	23.3
2 0 2 3 년	100.0	78.5	100.0	1.1	5.7	69.5	18.8	4.8	21.5
2 0 2 5 년	100.0	80.1	100.0	0.3	9.6	50.2	33.7	6.2	19.9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74.8	100.0	0.0	5.1	46.4	43.7	4.8	25.2
북 부 권	100.0	79.8	100.0	0.6	13.9	49.5	27.8	8.2	20.2
서 남 부 권	100.0	84.0	100.0	0.1	8.1	53.0	33.6	5.2	16.0
< 성 별 >									
남 자	100.0	86.7	100.0	0.4	8.7	51.2	33.7	6.0	13.3
여 자	100.0	72.3	100.0	0.1	10.9	48.6	33.8	6.5	27.7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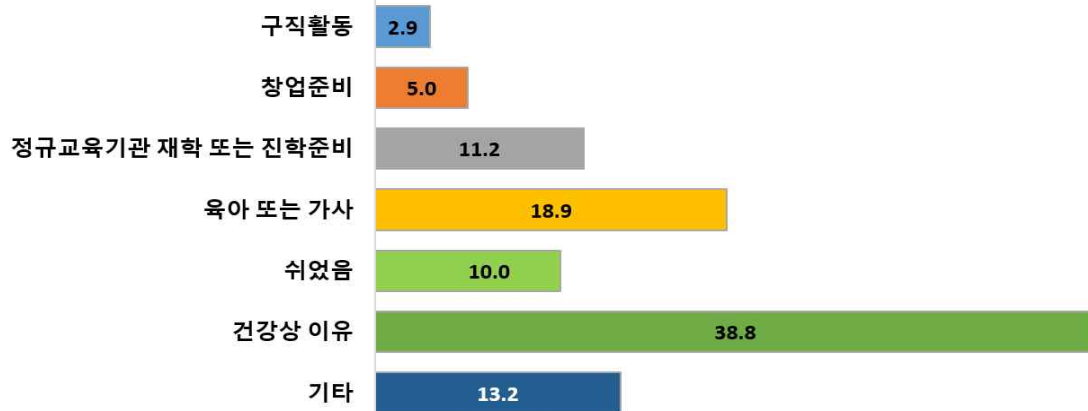
2-25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건강상 어려움」

-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19.9%) 중에서 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건강상 이유」(38.8%)가 가장 많았으며, 「육아 또는 쉬었음」(18.9%), 「기타」(13.2%) 순으로 나타남.

- 「건강상 이유」 응답은 2023년 44.2%에서 2025년 38.8%로 감소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건강상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중부권(40.5%), 서남부권(39.0%), 북부권(36.5%)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47.2%)과 여성(34.0%) 모두 「건강상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남.
- 연령별: 15~29세는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응답이 가장 많고, 70세 이상은 「건강상 어려움」 응답이 가장 많음.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육아 또는 가사」 응답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표 2-25]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구 분	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소계	구직활동	창업준비	정규교육기관재학 또는 진학준비	육아 또는 가사	쉬었음	건강상 어려움	기타
2021년	100.0	76.7	23.3	100.0	0.6	4.5	13.3	20.6	24.6	-	36.3
2023년	100.0	78.5	21.5	100.0	0.6	2.1	11.3	20.6	10.4	44.2	10.8
2025년	100.0	80.1	19.9	100.0	2.9	5.0	11.2	18.9	10.0	38.8	13.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74.8	25.2	100.0	0.0	1.2	11.9	23.0	13.9	36.5	13.5
북 부 권	100.0	79.8	20.2	100.0	6.3	5.7	6.4	20.3	6.3	40.5	14.5
서 남 부 권	100.0	84.0	16.0	100.0	1.7	7.9	16.7	12.9	10.5	39.0	11.2
< 성 별 >											
남 자	100.0	86.7	13.3	100.0	8.1	4.5	10.7	0.0	17.6	47.2	11.9
여 자	100.0	72.3	27.7	100.0	0.0	5.2	11.5	29.7	5.6	34.0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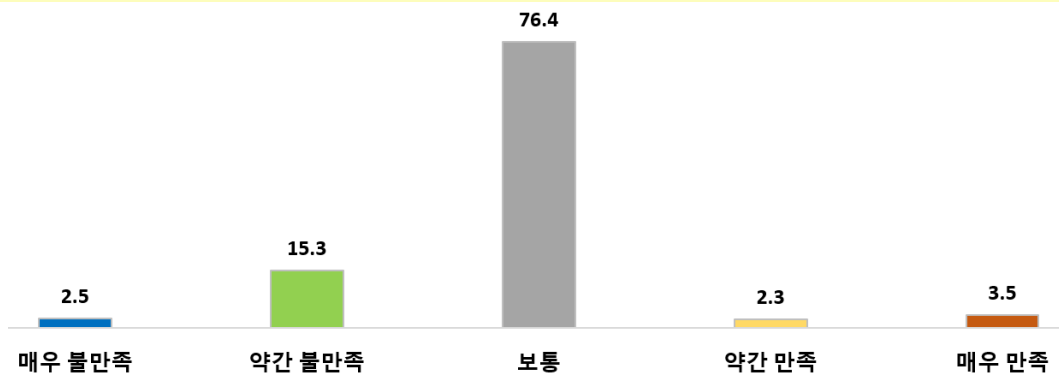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한군 사회조사

2-26 교육환경 만족도 - 1)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통」

- 2025년 신안군 미취학 아동 보육 가구(4.5%)의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 만족도는 「보통」(76.4%)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17.8%), 「만족」(매우+약간 만족)(5.8%) 순으로 나타남.
- 「불만족」 응답은 2023년 38.9%에서 2025년 17.8%로 크게 감소함.
- 지역별: 북부권은 「불만족」(45.9%)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63.7%)과 서남부권(88.1%)은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73.6%)과 여성(100.0%) 모두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 연령별: 40대는 「불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분석됨.

교육환경 만족도 - 1)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



[표 2-26] 교육환경 만족도 - 1)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위: %)

구 분	계	해당 있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2021년	100.0	4.8	100.0	1.4	12.1	60.6	21.8	4.1	95.2
2023년	100.0	4.2	100.0	9.1	29.8	36.2	11.1	13.8	95.8
2025년	100.0	4.5	100.0	2.5	15.3	76.4	2.3	3.5	95.5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0	100.0	0.0	45.9	23.8	0.0	30.3	98.0
북 부 권	100.0	2.1	100.0	0.0	36.3	63.7	0.0	0.0	97.9
서 남 부 권	100.0	8.5	100.0	3.6	5.1	88.1	3.2	0.0	91.5
< 성 별 >									
남 자	100.0	7.4	100.0	2.8	17.1	73.6	2.6	3.9	92.6
여 자	100.0	1.0	100.0	0.0	0.0	100.0	0.0	0.0	99.0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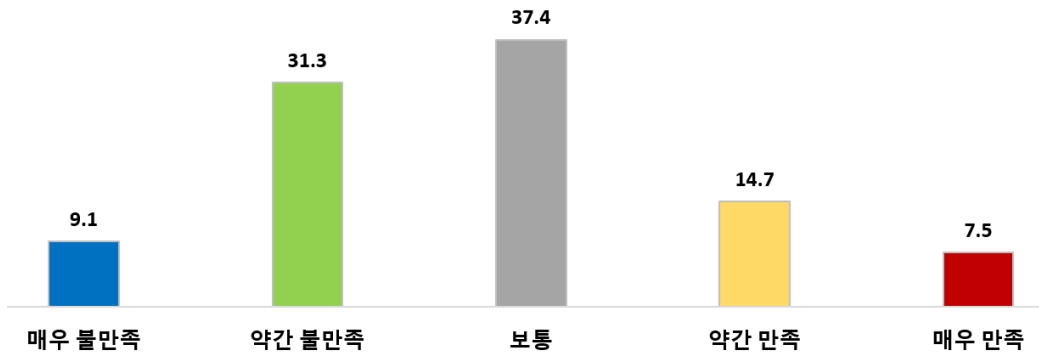
2-27 교육환경 만족도 - 2)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 만족도 「불만족」

- 초·중·고 자녀 가구(5.7%)의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40.4%)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통」(37.4%), 「만족」(매우+약간 만족)(22.2%)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 인식이 우세함.

- 「불만족」 응답은 2023년 38.6%에서 2025년 40.4%로 소폭 증가함.
- 지역별: 북부권(45.5%)과 중부권(47.6%)은 「불만족」, 서남부권은 「보통」(48.1%)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은 「불만족」(42.4%), 여성은 「보통」(40.4%)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불만족」 응답은 60대(55.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환경 만족도 - 2)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



[표 2-27] 교육환경 만족도 - 2)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

(단위: %)

구분	계	해당 있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2021년	100.0	6.1	100.0	1.1	18.7	61.1	14.9	4.1	93.9
2023년	100.0	6.6	100.0	6.8	31.8	31.1	28.6	1.7	93.4
2025년	100.0	5.7	100.0	9.1	31.3	37.4	14.7	7.5	94.3
< 지역별 >									
중부권	100.0	6.2	100.0	13.8	31.7	16.4	17.8	20.3	93.8
북부권	100.0	3.3	100.0	5.9	41.7	38.6	13.8	0.0	96.7
서남부권	100.0	7.7	100.0	8.0	26.6	48.1	13.4	4.0	92.3
< 성별 >									
남자	100.0	8.8	100.0	9.2	33.2	36.8	11.9	8.9	91.2
여자	100.0	1.9	100.0	8.5	21.6	40.4	29.5	0.0	98.1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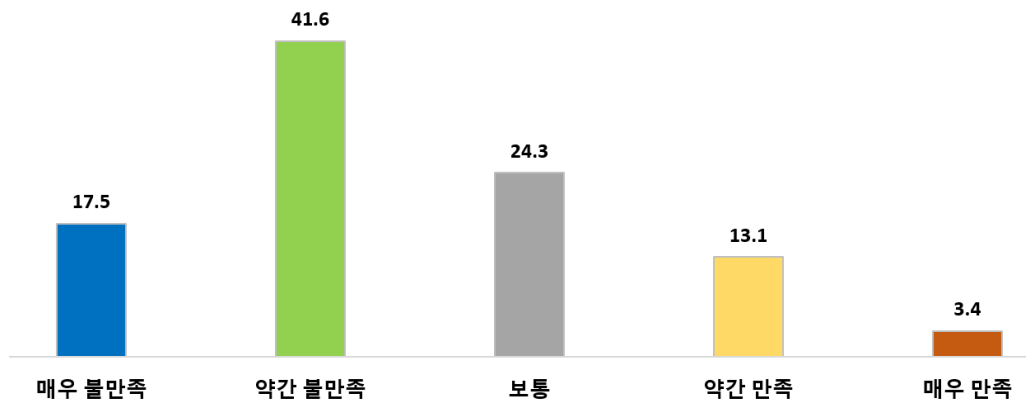
2-28 교육환경 만족도 - 3) 학생들의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받을 기회

정규교육 이외에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 「불만족」

- 초·중·고 자녀 가구(5.3%)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 이외에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매우+약간 불만족)(59.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통」(24.3%), 「충분하다」(매우+약간 만족)(16.5%)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 인식이 매우 우세함.

-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2023년 80.4%에서 2025년 59.1%로 크게 감소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63.6%), 북부권(61.1%), 중부권(47.6%)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61.4%)과 여성(48.1%) 모두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부족하다」는 응답은 50대(75.5%)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환경 만족도 - 3) 학생들의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받을 기회



[표 2-28] 교육환경 만족도 - 3) 학생들의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받을 기회

(단위: %)

구분	계	해당 있음	소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2021년	100.0	6.2	100.0	11.3	29.3	46.8	12.7	0.0	93.8
2023년	100.0	6.9	100.0	26.4	54.0	11.6	8.0	0.0	93.1
2025년	100.0	5.3	100.0	17.5	41.6	24.3	13.1	3.4	94.7
< 지역별 >									
중부권	100.0	5.2	100.0	11.6	49.5	11.0	14.0	14.0	94.8
북부권	100.0	3.3	100.0	9.2	38.4	20.3	32.1	0.0	96.7
서남부권	100.0	7.5	100.0	24.2	39.4	32.4	4.1	0.0	92.5
< 성별 >									
남자	100.0	8.2	100.0	20.1	41.3	19.9	14.6	4.1	91.8
여자	100.0	2.0	100.0	4.9	43.2	46.0	5.9	0.0	98.0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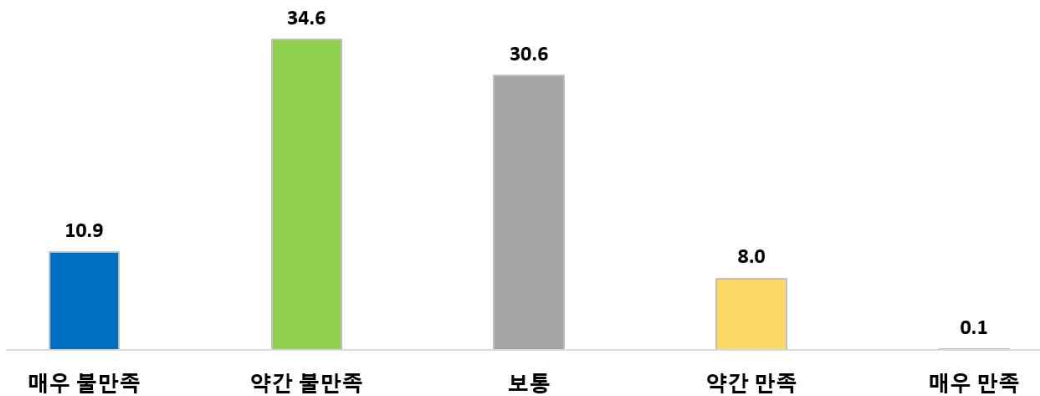
2-29 교육환경 만족도 - 4) 평생교육 기회의 충분여부

평생교육 기회 「불만족」

- 2025년 신안군민의 평생교육 기회에 대해서는 기회가 「부족하다」(매우+약간 불만족)(45.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통」(30.6%), 「충분하다」(매우+약간 만족)(8.1%)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 인식이 우세함.

-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2023년 51.0%에서 2025년 45.5%로 감소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8.2%), 서남부권(45.7%), 중부권(37.0%)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부족하다」는 응답은 여성(43.5%)보다 남성(47.1%)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5~29세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불만족」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환경 만족도 - 4) 평생교육 기회의 충분여부



[표 2-29] 교육환경 만족도 - 4) 평생교육 기회의 충분여부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2021년	100.0	6.4	29.7	31.3	14.2	0.5	17.9
2023년	100.0	12.1	38.9	29.0	5.0	1.2	13.8
2025년	100.0	10.9	34.6	30.6	8.0	0.1	15.9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5.0	43.2	17.2	2.9	0.2	21.5
북 부 권	100.0	6.4	30.6	34.3	12.8	0.0	16.0
서 남 부 권	100.0	12.8	32.9	35.6	6.5	0.1	12.0
< 성 별 >							
남 자	100.0	10.8	36.3	31.8	7.6	0.1	13.3
여 자	100.0	11.0	32.5	29.1	8.4	0.1	18.9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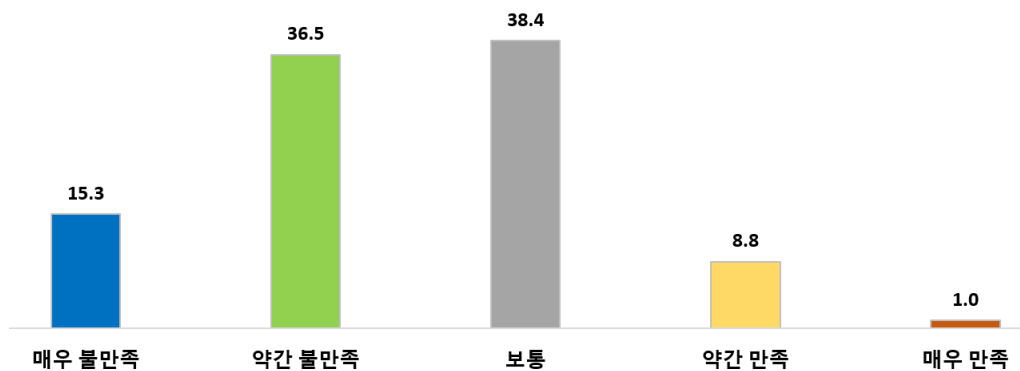
2-30 여가활동 만족도 - 1)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불만족」

- 2025년 신안군민의 문화여가시설 만족도는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51.8%)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통」(38.4%), 「만족」(매우+약간 만족)(9.8%)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 인식이 우세함.

- 「불만족」 응답은 2023년 50.4%에서 2025년 51.8%로 소폭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불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54.4%), 중부권(53.0%), 북부권(46.0%)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불만족」 응답은 남성(49.3%)보다 여성(54.7%)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불만족」 응답이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여가활동 만족도 - 1)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표 2-30] 여가활동 만족도 - 1)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21년	100.0	16.0	32.9	46.0	4.3	0.8
2023년	100.0	14.1	36.3	45.4	2.9	1.2
2025년	100.0	15.3	36.5	38.4	8.8	1.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7.3	28.7	43.7	10.2	0.2
북 부 권	100.0	10.6	42.4	33.7	10.9	2.3
서 남 부 권	100.0	18.6	35.8	39.5	5.9	0.2
< 성 별 >						
남 자	100.0	12.1	37.2	40.6	9.2	0.8
여 자	100.0	19.0	35.7	35.7	8.5	1.2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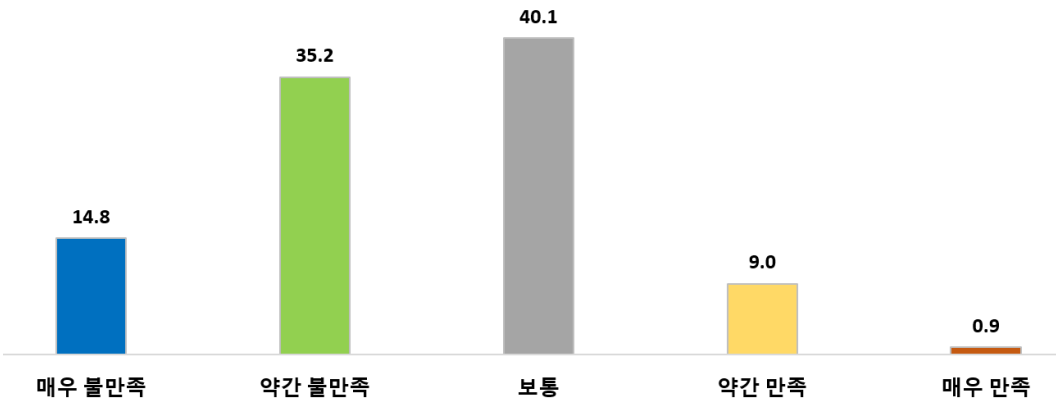
2-31 여가활동 만족도 - 2) 전반적인 여가활동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불만족」

- 2025년 신안군민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는 「불만족」(매우+약간 불만족) (50.0%)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통」(40.1%), 「만족」(매우+약간 만족)(9.9%)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 인식이 우세함.

- 「불만족」 응답은 2023년 49.2%에서 2025년 50.0%로 소폭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불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52.9%), 중부권(50.4%), 북부권(44.8%)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불만족」 응답은 남성(48.6%)보다 여성(51.6%)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불만족」 응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조사됨.

여가활동 만족도 - 2) 전반적인 여가활동



[표 2-31] 여가활동 만족도 - 2) 전반적인 여가활동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 0 2 1 년	100.0	14.9	32.6	47.4	4.1	1.0
2 0 2 3 년	100.0	15.1	34.1	45.8	4.0	1.0
2 0 2 5 년	100.0	14.8	35.2	40.1	9.0	0.9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14.9	29.9	40.7	14.3	0.2
북 부 권	100.0	11.2	39.2	39.1	8.5	2.0
서 남 부 권	100.0	18.3	34.6	40.7	6.0	0.4
< 성 별 >						
남 자	100.0	12.7	35.9	41.4	9.2	0.8
여 자	100.0	17.3	34.3	38.6	8.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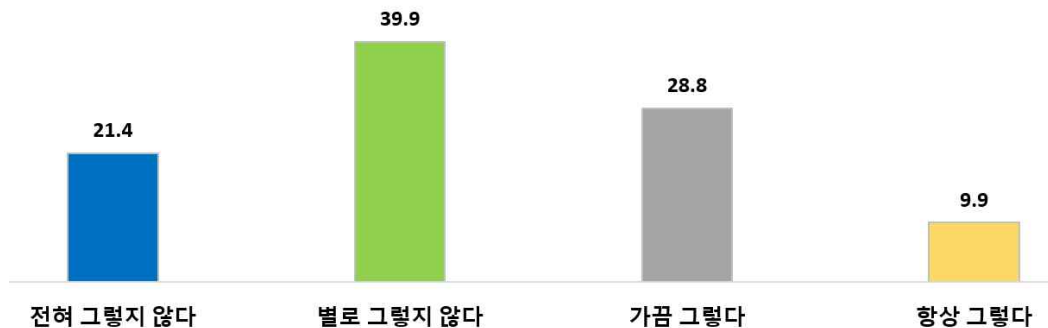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2-32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바쁘거나 시간이 부족) - 1) 평일

평일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 평일에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바쁘지 않다」(전혀+별로)(61.3%)가 「바쁘다」(가끔+항상)(38.7%)보다 높게 나타나, 평일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바쁘다」는 응답은 2023년 34.2%에서 2025년 38.7%로 소폭 증가함.
- 지역별: 중부권(50.9%)이 가장 바쁘다고 느꼈으며, 서남부권(45.8%), 북부권(9.6%)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37.9%)보다 남성(39.4%)이 더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 30대(57.5%)가 가장 바쁘다고 느꼈으며, 70세 이상 고령층(25.0%)이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 '배우자 있음'(42.8%) 집단이 가장 바쁘다고 느꼈고, '사별/이혼'(25.7%) 집단이 가장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15.0%)보다 취업자(44.6%)가 훨씬 더 바쁘다고 느낌.
- 직업별: 사무직(67.2%)이 가장 바쁘다고 느꼈으며, 서비스/판매직(34.7%)이 가장 여유로운 것으로 나타남.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바쁘거나 시간이 부족) - 1) 평일



[표 2-32]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바쁘거나 시간이 부족) - 1) 평일

(단위: %)

구 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2 0 2 1 년	100.0	13.3	39.5	36.2	10.9
2 0 2 3 년	100.0	21.1	44.8	29.2	5.0
2 0 2 5 년	100.0	21.4	39.9	28.8	9.9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45.6	44.8	7.5	2.1
북 부 권	100.0	8.7	40.4	34.1	16.8
서 남 부 권	100.0	18.1	36.1	37.8	8.0
< 성 별 >					
남 자	100.0	21.4	39.3	29.3	10.1
여 자	100.0	21.5	40.6	28.3	9.6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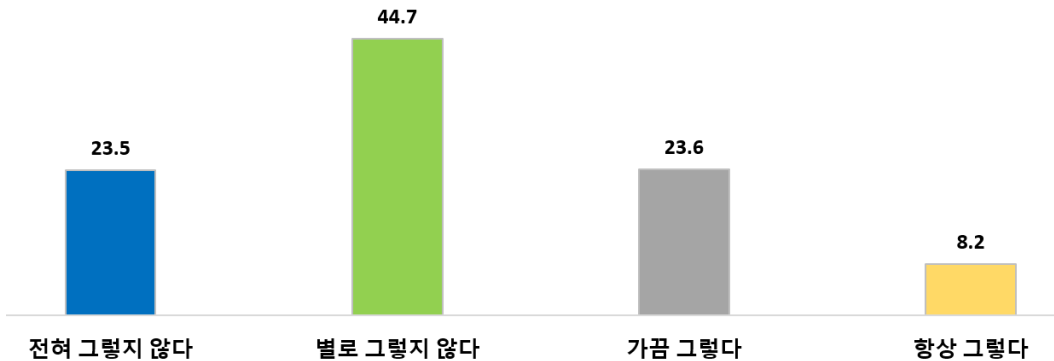
2-33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바쁘거나 시간이 부족) - 2) 주말(공휴일 포함)

주말(공휴일 포함)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 주말(공휴일 포함)에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신안군민의 응답은 「바쁘지 않다」(전혀+별로)(68.2%)가 「바쁘다」(가끔+항상)(31.8%)보다 높게 나타나,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바쁘다」는 응답은 2023년 34.8%에서 2025년 31.8%로 소폭 감소함.
- 지역별: 중부권(42.0%)이 가장 바쁘다고 느꼈으며, 서남부권(35.7%), 북부권(10.7%)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30.3%)보다 남성(33.2%)이 더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 30대(46.5%)가 가장 바쁘다고 느꼈으며, 70세 이상 고령층(19.0%)이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 '배우자 있음'(36.0%) 집단이 가장 바쁘다고 느꼈고, '사별/이혼'(17.6%) 집단이 가장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9.8%)보다 취업자(37.3%)가 훨씬 더 바쁘다고 느낌.
- 직업별: 사무직(57.0%)이 가장 바쁘다고 느꼈으며, 기능/노무직(28.8%)이 가장 여유로운 것으로 나타남.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바쁘거나 시간이 부족) - 2) 주말(공휴일 포함)



[표 2-33]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바쁘거나 시간이 부족) - 2) 주말(공휴일 포함)

(단위: %)

구 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2 0 2 1 년	100.0	14.9	44.3	31.3	9.5
2 0 2 3 년	100.0	21.5	43.8	30.2	4.6
2 0 2 5 년	100.0	23.5	44.7	23.6	8.2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44.8	44.5	8.6	2.1
북 부 권	100.0	12.7	45.3	26.5	15.5
서 남 부 권	100.0	20.1	44.2	30.8	4.9
< 성 별 >					
남 자	100.0	24.2	42.6	24.9	8.3
여 자	100.0	22.6	47.1	22.1	8.2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